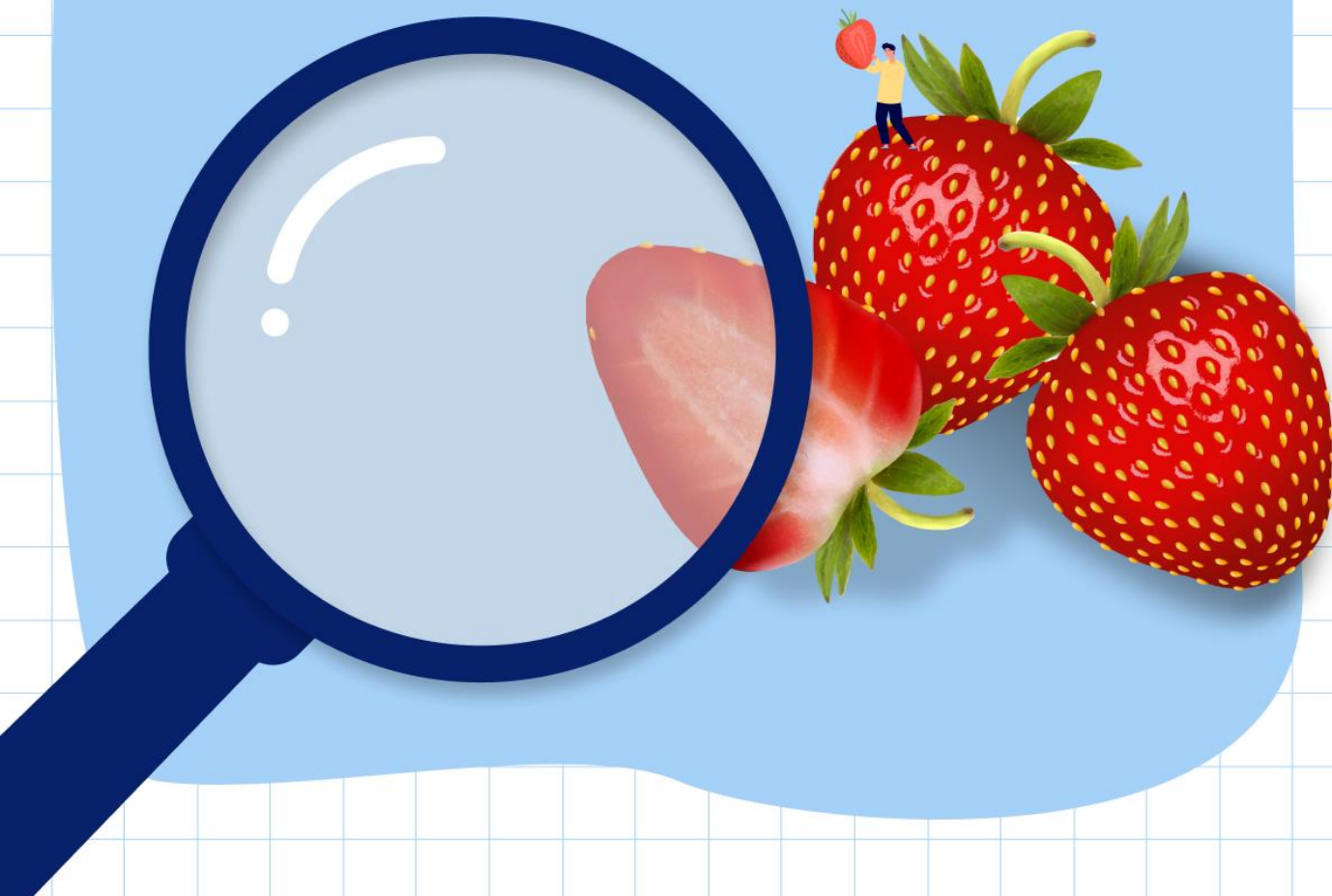


스마트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딸기 정식준비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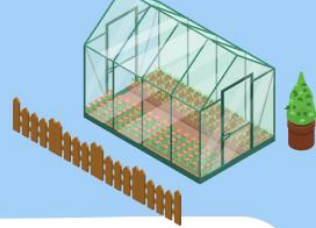
9월

딸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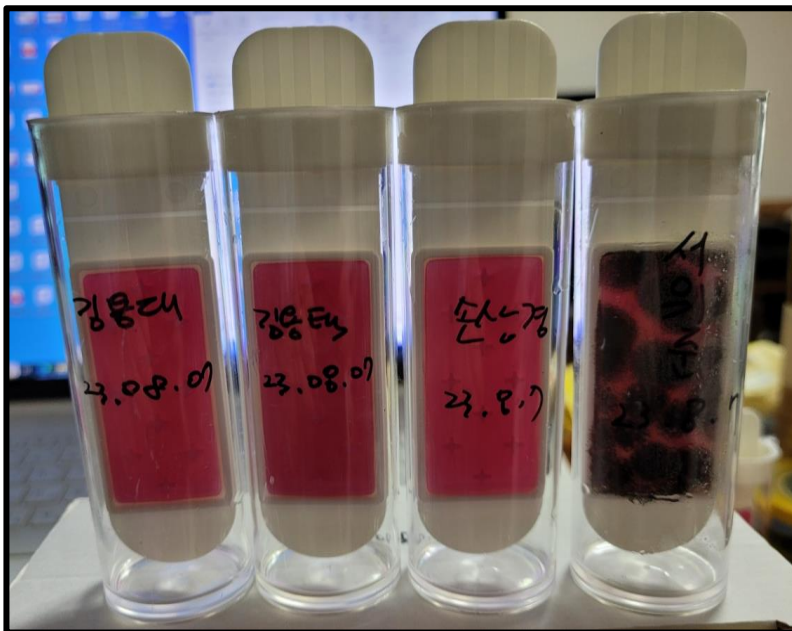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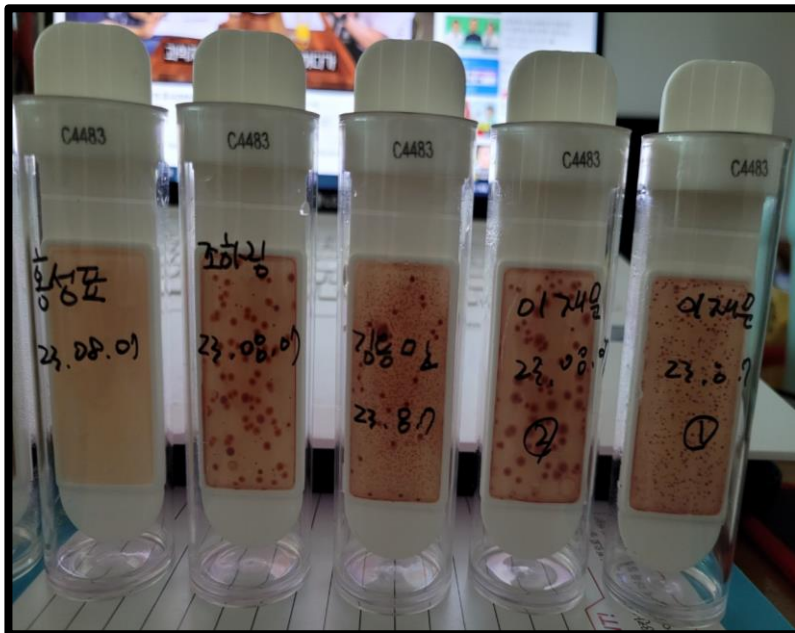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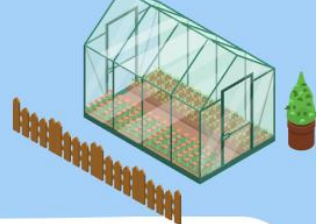
가.

딸기 정식준비



1. 장마와 태풍으로 강우량이 많아서 지하수 수위가 매우 상승하였습니다. 이 경우,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크므로 원수 균 분석을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물 균 분석(세균 & 곰팡이)키트를 사용하여 작기 전에 지하수, 원수탱크의 물, 드리퍼를 통해 나오는 물의 균 분석을 실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장마 후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세균병(무름병, 잘록병)과 곰팡이병(흰가루병, 푸사리움, 노균병, 탄저병 등)이 문제가 될 위험이 높습니다. 정식 전에 온실 소독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온실 소독 후 클로로칼퀴(차아염소산칼슘)를 온실 내부에 항상 습한 곳에 1~2알씩 뿌려두면, 서서히 기화되면서 소독이 됩니다.

원수통에는 넣으면 안됩니다. (염소가 잔류농약으로 검출됩니다)

3. 딸기의 재식밀도는 품종과 재배시스템에 따라 조금 상이합니다.

설향이나 매향 등 중소형과는 10~12plant/m² 로 다소 높게, 금실이나 킹스베리 등 중대형과는 5~7plant/m² 정도로 낮게 관리합니다.

토경이나 갑바베드 타입의 고설 수경재배 일때는 재식밀도를 높게 관리하며, 거터베드에 자루배지를 사용하거나 화분을 사용할때는 재식밀도를 평균이나 조금 낮게 합니다. 또한 측아재배 유무에 따라서도 재식밀도는 달라지므로, 농가는 재식밀도를 결정할 때 품종과 재배시스템과 측아재배 유무를 잘 판단하여 재식밀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4. 유기물 배지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배지의 이화학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에 맞는 초기 배지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유기물 배지는 양이온치환용량(cation exchange capacity, CEC)이 매우 높아서 새 배지의 경우, 양이온 특히 철 흡착을 심하게 나타나 어린 작물에 철결핍증상의 발생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처음 만드시는 농축배양액은 배양액 조성표에서 제시한 철 투입량의 2배를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즉, 농축배양액 A탱크에 배양액 조성표에서 제안하는 철 투입량의 2배를 넣어서 만들어 사용하시고, 이후에는 배양액 조성표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5. 일반적으로 딸기 배지는 해마다 부족분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4~5년 사용합니다. 즉, 4~5년간 배지를 재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배지를 소독하며 사용하셔야 근권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기물 배지는 과산화수소수계 소독약(예 : 후와산)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염소계 소독약이나 기타 농약성분이 포함된 소독약들은 작물이 흡수하여 잔류농약으로 검출되므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정식 전에는 과산화수소계 소독약인 후와산을 1000ppm 농도로 배지에 관주하여 소독하면 되고, 작물이 있을 때에는 주기적으로 100ppm 농도로 관주하시면 작물에 해가 없이 배지 소독이 가능합니다.



6. 작물은 배지에 꼭 심어주시고, 드리퍼는 작물에서 멀찍이
떨어뜨려서 꽃아주시고, 정식 직후 흙뻘(10분 이상)
급액하신 후, 약 10일간 전체 급액은 중단하고, 개별 관주하며
활착을 유도하면 됩니다.
7. 활착하는 기간(약 10일 정도)에는 전체 급액을 중단하셔도 됩니다.
다만 아침저녁으로 하루에 2번 정도 작물을 확인하셔서 시든
작물에는 혼합탱크의 양액을 200ml 정도 개별 포기관주하며
관리하면 됩니다.
포기관주 후 하루가 지나도 회복이 안되는 작물은 뿌리가
상하거나 문제가 있는 작물이므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8. 활착기간 동안은 계속 차광 70% 하고 계시다가 활착이 완료되면
서서히 차광율을 낮추어 작물의 광적응을 유도합니다.